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정,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종류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윤주(오택현) 강은미 김규찬(최효자) 김병율(이영숙) 김재민(이강우) 김정자 김종선(박영숙)
김종진(한안나) 김한나 김현구(서재희) 박복례 박순자(이동수) 박승현 박은숙(정양학) 배세영(이경순)
석형기(이희순B) 오택현(김윤주) 유은자 윤병호(양영욱) 이근자 이미자 이상희 이영순 이월숙 이윤옥
이형욱 조규례 지옥분 천세력(염영분) 최기훈(정계숙) 최봉순(서진화) 최상걸(이미향) 최정규(김미영)
허봉선 황상근 황영옥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강은미 김경엽(손정아) 김재민(이강우) 김준구(이소은) 김지한(유소정) 박권제(송영숙)
박복순(김대준) 박부웅(최귀남) 박종상(이명원) 배세영(이경순) 새롬 유은자 윤정호(유옥자)
이경순(배세영) 이근자 이명희(문영원) 이상희 이영순 이옥남 이월숙 이윤옥 이향고 이형욱
임형문(박금옥) 장윤주(김현진) 천세력(염영분) 최기훈(정계숙) 최봉순(서진화) 최상걸(이미향) 추재호
하세련 허봉선 황한표 황영옥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대진(노윤경)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병율(이영숙) 김정연B(강준식) 김정자 김종선(박영숙)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남해순 맹지혜(임기빈) 민옥희(윤순한) 박금엽 박부웅(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박승현 박종상(이명원) 박복순 박경자(김창길) 백성원(안지영) 서재희(김현구) 석형기(이희순B)
송다해 송백현(이태일) 송형기(김현숙) 염영분(천세력) 오택현(김윤주) 유미진 윤현석 이경자(주경덕)
이미자 이종문 전순봉 진보숙 채영열 최성현 최효자(김규찬) 황영옥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아이라 김이안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박복순 서로하 송백현 심순옥 양영욱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이 이상희
이소은 이송예 이아란 이옥남 정승현 정혜지 주성락 최귀남 최봉순 황영옥 무 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11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사무엘상 21장 10 ~ 15절				
주 일				
월요일	사무엘상 22장 1 ~ 10절	목요일	사무엘상 23장 15 ~ 29절	
화요일	사무엘상 22장 11 ~ 23절	금요일	사무엘상 24장 1 ~ 15절	
수요일	사무엘상 23장 1 ~ 14절	토요일	사무엘상 24장 16 ~ 22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준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박종상 최상걸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정대진
	전도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찬양대	지휘자	할렐 루야 : 김한나 호산나 : 시온 · 예덴 : 최원지 엔젤 :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룙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이수경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철 이성옥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문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엑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출거문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3. 03. 05.

고통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옴기 19장 1~20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옴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의 삶을 무섭도록 파괴하시고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듯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아치는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 홀로 오롯이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고통 속에서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1.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 옴은 갑자기 찾아온 온갖 고난 속에서 당황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옴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의 삶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이끄셨던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옴의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시는 듯합니다. 외면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고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출구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옴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옴은 더욱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렇듯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옴이 느꼈던 영적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응답은 너무나 더딥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역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대표적 예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으로부터 멀리 계시며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숨어 계시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마침내 우리의 탄식은 반드시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나와 마침내 그 끝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2. 고난 속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 하나님은 옴을 돕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옴은 홀로 남아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옴은 형제들도 멀리 떠나고 친척들도 자기를 버렸으며 종들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과거 옴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 든든한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이 그의 집을 자주 왕래하며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끊어 놓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옴을 멀리하고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한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소망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는 옴이 고난 속에서 느낀 고립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으며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같이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마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로 바꾸는 온전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시인은 외로움이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믿고 또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옴과 시편 저자처럼 깊은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생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찾을 것도, 소망도 없는, 메마른 광야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외롭고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녀 된 우리에게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단 되는 소중한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어름 속에서 외로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SINCE 1975

No. 49 - 11

2023. 0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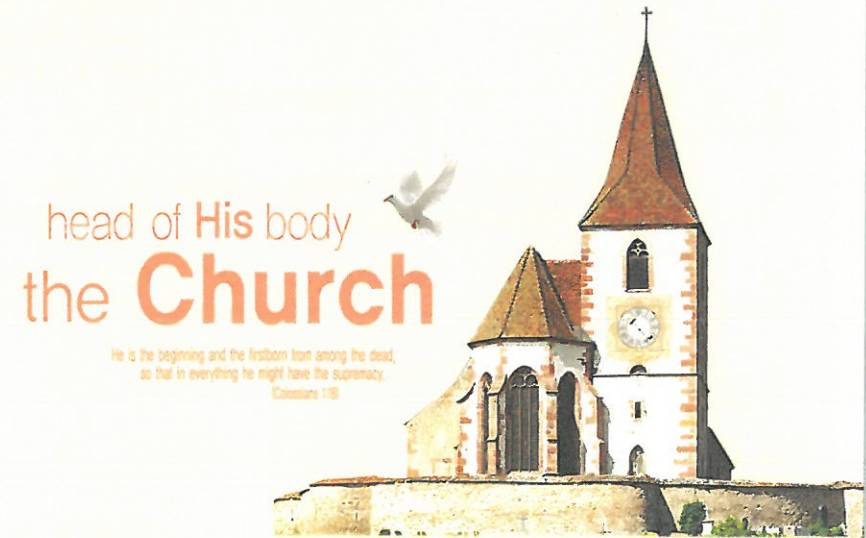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3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회: 최 상 결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Silent Prayer)	할렐루야찬양대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413(통470)장 다 같 이
(Praise) 내 평생에 가는 길

대 표 기 도 [1부]유현호집사 [2부]최상결장로 [3부]최상결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율기 19장 21~29절[구약p.779]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주님의 사랑(황선우)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욥의 믿음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545(통344)장 다 같 이
(Praise)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은 예배시 꼭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최 기 훈 장 로
묵	도
성	시
간	구
찬	양
기	도
성 경 봉 독	아고보서 2장 1~13절[신약p.372]
찬	양
설	교
광	고
찬	양
축	도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6장 25~34절[신약p.216]
설	교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4: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록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 광고
 -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다음 주일(19일)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입니다.
 - [초원 및 목장 예배]
초원 및 목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초원/목장 예배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예배/새벽예배/수요기도회/금요기도회]
예배와 기도 회복을 위하여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수요기도회 및 금요기도회에 목장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상반기 학습·세례·입교 문답 공부]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위한 문답 공부 진행 중입니다. 각 초원과 목장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돌아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고 문답 공부에 꼭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2일, 19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로템나무
 - [휠체어석 안내]
가운데 줄 맨 뒷좌석에 휠체어석을 마련하였습니다.
 - [서울남노회 영등포시찰 정기회]
서울남노회 영등포시찰 정기회가 13일(월) 오전 11시 남부천교회 당(박상학 목사 시무)에서 있습니다.
 - [서울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3월 실행위원회가 16일(목) 오전 11시 신반포교회 당(홍문수 목사 시무)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 [예배시간 핸드폰 끄기 캠페인]
모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꼭 무음 혹은 잠시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행사 안내]
 - 3월 5일(주일)부터 문답 예비 공부
 - 19일(주일)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 25일(토) 문답식
 - 26일(주일) 브라카 찬양단과 함께 하는 찬양 예배

이 번 주		다 음 주	
* 여전도회 월례회	3부 예배 후/본당	* 남전도회 월례회	3부 예배 후/본당
* 문답예비공부	1시30분/로템나무	* 문답예비공부	1시30분/로템나무
		* 교육위원회	찬양예배 후/사무실

- ◎ 교우소식
 - 소천 : 故 김양순 집사 (사랑2/개봉2, 심숙희 집사 모친) 10일(금) 소천, 13일(월) 장례
- ◎ 담임목사동정
 - 서울남노회 영등포시찰 정기회 13일(월) 오전 11시 남부천교회(박상학 목사 시무).
-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증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박지순 권사	김시윤 어린이	진취부 성도 석애자 권사 석형기 집사 이희순 권사	총성 믿음 특별 신도령, 광명 등촌	루디아 여전도회
떡	전병구 집사, 이인숙 권사(부친장례)				
다음주	이명희 권사		장영원 장로 김옥자 권사 윤정호 장로 유옥자 권사	믿음 부천 믿음 묵동, 일산	한나 여전도회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3월 1주(05일)	박종삼 장로	오동호 집사	윤영준 장로	박종삼 장로	담 임 목 사	김경엽 집사
2주(12일)	최상걸 장로	유현호 집사	최상걸 장로	최상걸 장로	최기훈 장로	채만기 집사
3주(19일)	윤영준 장로	장윤주 집사	박종삼 장로	윤영준 장로	최성현 장로	홍정훈 집사
4주(26일)	담 임 목 사	홍정훈 집사	김병을 장로	김병을 장로	담 임 목 사	최정규 집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